

신뢰의 계약이 서사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영화 <마스터>에서 나타난 계약과 양태화 과정을 중심으로 *

송치만** · 조은진***

【 차 례 】

- I. 서론
- II. 계약과 신뢰
- III. 신뢰 계약의 성립과 파기
- I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서사적 소통에서 발생한 계약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리는 영화 <마스터(The Master)>(2012)의 서사를 신뢰에 기반을 둔 계약의 성립과 파기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신뢰 계약의 체계를 재검토한다. 엄격한 위계적 관계에서 수령자는 송출자의 절대적 위상에 복종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신뢰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위상이 전복될 수 있다. 송출자의 설득 행위에서 제시된 가치 대상에 대하여 수령자는 적극적인 해석 행위를 하게 된다. 이때 수령자는 송출자의 믿음직함, 가치 대상의 신뢰도, 수령자의 지지라는 세 가지 측면에 근거하여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맺는다. 또한 주체가 송출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경우 주체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계약의 성립과 파기에 개입하는 중요한 양태성이 /지식/과 /믿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열쇠어 : 신뢰의 계약, 서사적 변형, 양태화, 지식, 믿음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연구년 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커뮤니케이션학과 커뮤니케이션학전공 박사과정

I. 서론

그레마스(Algirdas Julien Greimas)의 서사-기호학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점 또한 분명하다. 그 이유는 이론의 복잡한 구조가 분석의 효율성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론 전체를 세밀하게 분석에 활용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강박이 이런 실수의 원인이 될 것이다. 발화된 텍스트는 발화자(énonciateur)의 의도에 따라 특정한 부분이 강조되고 또 어떤 부분은 생략되기도 한다. 의미 생성 행로(parcours génératif)의 세밀한 적용은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분석 결과의 기술은 효율성을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분석하는 텍스트의 서사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 생성 과정을 기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분석의 자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텍스트의 의미효과를 규명하는 일이다. 기술의 선택은 자의적이라기보다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기술대상은 의미의 단계적 생성 과정과 담화화(discursivisation) 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부터 선택되어야 한다. 기술의 균형이라는 명목 때문에 생략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서사적 단위의 기술에 집착하는 것은 의미파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그레마스 서사-기호학의 경우를 말하자면 서사 도식(schéma narratif)의 최종단계인 제재(sanction)의 기술은 이전의 수행(performance)을 전제하고 수행은 다시 잠재능력(compétance)의 획득단계를 전제한다. 잠재능력도 마찬가지로 조종(manipulation)을 전제한다. 그러나 모든 텍스트가 이 4단계를 균형 있게 구상화(figurativisation)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특정 단계가 부각되더라도 다른 단계는 전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론적 시물라크르로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담화화 과정에서 선택된 서사적 단위가 발하는 의미효과를 적절하게 규명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레마스의 서사-기호학적 분석이 기계적 단순성을

벗어나 효율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서사-기호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조종과 잠재능력 단계에서 발생하는 계약(contrat)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계약에 연루된 소통의 주체 간에 존재하는 신뢰의 문제가 계약의 유지와 임무 수행에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계약의 성립과 파기를 신뢰의 측면에서 파악할 것이다. 송출자(destinateur)와 수령자-주체(destinataire-sujet) 간에 맺어지는 계약이 신뢰에 기반을 둔다면 신뢰의 상실은 계약의 파기로 이어질 것이다. 송출자의 능력이 주체에게 전이되지 못해 주체가 임무 수행에 실패한다면 주체는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된다. 이러한 의문이 송출자에게로 향한다면 신뢰는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송출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성립했지만 양태화(modalisation) 과정에서 송출자를 불신하게 된 주체가 결국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레마스 서사-기호학의 특징은 이론적 검토가 즉각적으로 분석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론적 검토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는 동시에 텍스트의 의미 분석을 추구하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분석 대상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분석 대상으로 폴 토마스 앤더슨(Paul Thomas Anderson) 감독의 영화 <마스터(The Master)>(2012)를 선정하였다.¹⁾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 프레디(호아킨 피닉스)가 신흥종교집단 ‘코즈’의 교주 마스터(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을 만나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사회 부적응 문제를

1)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은사자상(감독상)을 수상했고, 주연 배우인 호아킨 피닉스(Joaquin Phoenix)와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Philip Seymour Hoffman)이 볼피컵 남우주연상을 공동으로 수상해 화제를 모은 영화이다.

안은 채 살아가던 프레디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마스터를 만나 그를 신뢰하게 된다. 병을 치료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채 마스터를 따르게 된 프레디는 신도이자 환자, 제자로서 마스터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스터의 능력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다. 마스터의 연구가 왜곡된 것임을 확신하게 된 프레디는 그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그의 곁을 떠난다.

본 연구에서 이 영화를 분석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먼저 마스터와 프레디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주와 신도, 의사와 환자, 스승과 제자로 등장하는 두 인물은 전적으로 신뢰를 요하는 관계들을 맺고 있다. 두 인물의 주제적 역할(rôle thématique)을 고려하면 그들의 위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능력과 지식의 편차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즉, 두 인물 간의 관계는 명백한 위계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전형적으로 송출자와 주체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행위소적(actantiel) 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주체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송출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주체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는 일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II. 계약과 신뢰

그레마스 서사-기호학의 이론적 지형도에서 계약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서사 도식의 첫 단계인 조종의 과정에서 송출자의 주도적인 설득과정을 통해 계약이 맺어진다. 이때 송출자는 자신이 주체에게 부여할 수 있는 /능력/(pouvoir)과 /지식/(savoir)을 바탕으로 설득 행위(faire persuasif)를 한다. 수령자는 이에 상응하는 해석과정을 거치게 된다. 두 행위소가 소통의 축 위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러한 인식론적 상호작용 때문이다. 그레마스 서사학의 논리상 두 행위소적 관

계의 위상은 불균형에 기반을 둔다. 송출자의 능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어서 주체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의 능력은 다분히 송출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인지적 차원(dimension cognitive)에서 /지식/의 불균형이 송출자의 설득 행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방해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식/이라는 양태적 능력(compétence modale)이 부족한 수령자-주체는 송출자의 제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계약이 강요된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 것도 /지식/의 양태성(modalité)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그레마스 역시 이 점을 주목하면서 가치 대상(objet de valeur)의 교환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가치에 대한 지식으로 이는 “가치 대상들에 대한 참된 앎”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 수령자의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해 송출자가 제안한 가치 대상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어렵다면 수령자는 무엇에 근거해서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판단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레마스는 기호학적 관점에서 소통이 단순하게 지식의 전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통의 두 주체가 다양한 주제적 역할을 수임할 수 있고 이전에 맺고 있던 관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중성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³⁾

이 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croire)의 문제다. 서사적 소통이 단순한 지식전달을 넘어 ‘알게 하는’(faire-savoir) 행위라면 이는 설득 행위가 된다. 설득은 상대를 ‘믿게 하는’(faire-croire)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송출자는 수령자의 믿음에 호소하는 것이다. 수령자 역시 송출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레마스가 서사-기호학의 조종 단계에 신뢰의 계약(contrat fiduciair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도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두 행위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식론적 행위(acte épistémique)라는 소통이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상호

2) 그레마스,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460쪽.

3) A. J. Greimas, *Du Sens II*, Seuil, 1983, p.115.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설득 행위는 송출자의 믿게 하는 행위에 수령자의 믿다라는 해석 행위(faire interprétatif)가 상응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⁴⁾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식론적 행위는 결국 믿음의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 즉 변형(transformation)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⁵⁾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믿음/의 주체로 수령자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란도프스키(Eric Landowski)는 이 점에 좀 더 주목하여 이전에 성립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주체간의 설득과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장한다.⁶⁾ 다시 말해 이 과정은 신뢰하는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하고, 신뢰하는 상대의 말을 ‘믿고 싶다’(vouloir-croire)는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결국 신뢰에 기반을 둔 소통의 시뮬라크르를 바탕으로 설득과 해석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통의 주체 간에 사전에 맺어진 관계가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며, 구체적으로 신뢰의 관계가 계약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국 수령자의 해석 행위에서 /지식/의 양태성이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점 외에도 /믿음/의 문제를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식/과 /믿음/이 계약의 성립에 개입하는 중요한 양태성이라면 동시에 계약의 파기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해준다. 계약이 송출자의 일방적인 정보전달과 수령자의 수동적인 해석 행위에 머물지 않고 /지식/과 /믿음/의 양태화가 행위소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가 송출자에게 품는 의심은 신뢰의 중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의 중지는 알아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지식, 즉

4) A. J. Greimas & J.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vol. 1, 2nd ed., Hachette, 1993, p.71.

5) A. J. Greimas, *op. cit.*, p.118.

6) A. J. Greimas & J.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vol. 2, Hachette, 1986, p.60.

메타지식(hyper-savoir)의 획득에서 비롯된다.⁷⁾ 송출자가 주체에게 부여할 능력을 근거로 계약을 맺었을 때, 송출자가 잠재능력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메타지식을 획득한 인지적 주체는 신뢰의 중지라는 상황에 직면한다. 즉, /지식/과 /믿음/의 양태성과 이접(disjonction)된 송출자는 서사적 정체성에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려는 계약의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한다.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원인으로 /능력/에 대한 부정적 /지식/이 작동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도 /믿음/의 양태화가 적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폰타니유(Jacques Fontanille)와 질베르베르(Claude Zilberberg)는 임무 수행의 실패 원인이 단순히 /능력/의 부재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부재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 무능력하다는 느낌이 수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주체는 자신의 양태적 존재(être modal)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두 이론가는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능력/에 대한 해석을 전제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계약에 개입하는 신뢰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학자는 베르트랑(Denis Bertrand)이다. 그는 프랑스 정부의 세계개혁과 관련된 담화에서 문제되는 신뢰(fiducie)의 계약을 분석한다. 경제 영역에서 사용되는 이 어휘의 사전적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신뢰의 계약에 대한 기호학적 재구성을 시도한다.⁹⁾ 특히 그는 참여하는 행위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계약의 특징을 설명한다.¹⁰⁾

7)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자크 폰타뉴, 『정념의 기호학』, 유기환·최용호·신정아 역, 강, 2014, 295쪽.

8) J. Fontanille & C. Zilberberg, *Tension et signification*, Mardaga, 1998, pp.189~190.

9) 베르트랑은 프랑스어 'fiducie' 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이 어휘는 주로 금융관계에서 사용되고 우리말로 바꾸면 '신탁'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행위소적 관계 설명을 위해서 그 사용을 일반화하면 '신뢰'가 적절해 보인다.

10) D. Bertrand, "Confiance politique et fiducie", in *Métier de la sémiotique*, edited by J.

송출자와 수령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방향적 소통과 비대칭적 위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베르트랑은 신뢰 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상에 전복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란도프스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송출자가 설득과정에서 제시한 가치 대상에 대하여 수령자의 적극적인 해석과 판단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수령자의 해석과정에 대한 논의는 새롭지 않다. 그러나 베르트랑의 주장의 특징은 신뢰의 계약과정에서 수령자가 무엇에 근거하여 계약에 동의하게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데 있다. 신임(confiance)의 상호주체적(intersubjective) 행로는 다음의 세 관계 속에서 배분되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송출자의 믿음직함(crédibilité), 가치 대상의 신뢰도(fiabilité), 수령자의 지지(adhésion).

그러면 먼저 송출자의 믿음직함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베르트랑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¹¹⁾ 우선 송출자에 대한 믿음은 평판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신뢰의 계약이 미래에 성사될 일에 대한 송출자의 보증에 기반을 둔다면 과거의 평판은 이 보증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신뢰 계약의 속성상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결과에 대하여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송출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담보(gage)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 계약은 윤리적이고 정념적 차원(dimension passionnelle)의 호의를 요구한다. 계약 후에 임무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주체가 서로에게 가지는 호의가 그 일의 성사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치 대상의 신뢰도는 송출자가 제안한 대상의 선명함에서 근거를 찾는다.¹²⁾ 다시 말해 수령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안된 대상은 엄격하게 한정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Fontanille & G. Barrier, PULIM, 1999, pp.48~49.

11) *Ibid.*, p.51.

12) *Ibid.*, p.53.

그렇지 않고 대상이 모호해지면 다른 대상과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송출자가 제안한 가치는 변질되고 만다. 베르트랑은 대상이 선명하지 않고 모호해지는 양상의 원인을 보조 프로그램(programme d'usage)의 복잡화로 설명한다.¹³⁾ 다시 말해 보조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기본 프로그램(programme de base)을 감춰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가치 대상과 관련하여 풀어볼 수 있다. 각각의 서사 프로그램(programme narratif)은 고유한 가치 대상을 갖는다. 그런데 그 대상의 성격에 따라 주체가 수행하는 임무의 특성이 결정된다. 송출자와 수령자-주체가 맺은 계약의 대상은 기본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보조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는 대개 기본 프로그램과 종속관계를 맺는다. 다시 말해 보조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가치 대상의 문제로 돌아오면 보조 프로그램의 증식은 다양한 대상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가치 대상이 증식하게 될 때 기본 프로그램의 가치 대상이 무엇인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령자의 지지라는 문제가 남는다. 수령자가 송출자의 제안을 지지하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수령자의 위상이 명확하게 한정되어야 한다.¹⁴⁾ 송출자의 제안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가 선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령자는 송출자의 제안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그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지는 /믿음/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풍타니유는 행위소적 관계를 바탕으로 둘 사이를 구분한다.¹⁵⁾ 주체와 가치 대상 사이의 관계를 변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지/(vouloir)와 /지식/이라 할 수 있는데 /믿음/ 역시 이러한 변모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반면에 송출자와 주체 사이에는 /의무/(devoir)와 /능

13) *Ibid.*, p.56.

14) *Ibid.*, p.56.

15) J.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8, pp.169~170.

력/이 일반적으로 작용하고 여기에도 역시 /믿음/이 개입할 수 있는데 풍타니유는 이와 관련하여 /지지/라는 메타언어를 사용한다. 그는 전자를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라 하고 후자를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구분한다. 중요한 것은 계약에서 제안되는 대상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그것을 제안하는 송출자에 대한 믿음이 모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체의 믿음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도 분별해야 한다. 계약이 파기되는 과정에서 믿음이 부재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그러한 분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송출자와 수령자 사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검토했고 다양한 요인들이 충족될 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표준서사도식에서는 마치 계약이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담과 같은 단순한 이야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계약의 단계가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한 담화화의 과정을 겪는 텍스트의 분석에서는 계약의 단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리는 이제 앞선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과 신뢰의 문제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Ⅲ. 신뢰 계약의 성립과 파기

1. <마스터>의 서사적 변형

계약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마스터>의 서사적 변형(transformation narrative)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화의 기본적인 서사 행로(parcours narratif)를 파악하고 있어야 비로소 단계별 고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결핍의 상태에 처한 프레디라는 인물을 발견할 수 있다. 주체의 서사 행로는 자신의 결핍을 극복함으로써 무너진 균

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레디가 자신이 나아갈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신경쇠약 증세를 겪는다. 사진 기사로 일하면서 한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지만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포기해버린다. 이후에는 일하던 농장에서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노인에 대한 과실 치상 혐의를 받고 도주하는 상황에 빠진다. 프레디는 알코올 남용 및 의존이 의심되며 성적 충동 및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부재 및 고모와의 근친상간으로 인해 그는 일상적인 가족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결핍을 겪고 있다. 또한 연인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떠났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결국 사랑마저 상실한다. 인간관계의 훼손으로 발현된 그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결핍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좌충우돌하면서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위협에 처한 상황이 프레디의 최초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결핍의 주체가 추구의 대상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찾아온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쫓겨 도망친 프레디는 마스터의 배에 숨어들게 된다. 마스터는 그런 프레디를 친구처럼 대하며 신뢰를 쌓는다. 프레디 역시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마스터에 대해 호의를 갖게 되고 결국 코즈에 합류한다. 코즈는 프로세싱이라는 치료 방법을 통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병을 치료함으로써 삶의 주인이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코즈에 합류한 후 프레디는 마스터의 프로세싱 제안을 받아들인다. 마스터와의 계약을 통해 프레디는 자율적인 삶이라는 가치 대상을 추구하는 주체로 형성된다. 프레디가 추구하는 서사적 변형은 다음과 같다.

$$F[(S_1 \rightarrow (S_2 \cap O))]$$

(S_1 : 마스터, S_2 : 프레디, O : 자율적인 삶)

현 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프레디가 상태 주체(sujet d'état)에 머물고 마스터가 행위 주체(sujet de faire)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프레디는 마스터가 부여하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수동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두 인물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을 고려하면 또 다른 행위소적 관계가 형성된다. 계약은 마스터와 프레디에게 송출자와 수령자라는 행위소적 역할(rôle actantiel)을 부여한다. 송출자가 부여하는 의무를 수령자-주체는 수행해야 한다. 프레디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포교 활동을 펼치는 프레디의 대사(“무료 프로세싱입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세요. 병으로부터 탈출하세요. 삶의 주인이 되세요”)를 통해 가치 대상과 프로그램들 사이의 위계 관계 설정, 그리고 그에 따른 시련(épreuve)의 구분이 가능하다.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프로그램, 근본시련(épreuve principale)을 구성한다면 그 방법의 획득 과정인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보조 프로그램, 즉 자격시련(épreuve qualifiante)이 된다. 자격시련은 능력을 획득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은 주체 프레디가 송출자 마스터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음으로써 현동화(actualisation)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프레디가 양태적 능력의 부재를 인지하고 마스터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다. 신뢰에 기반을 둔 계약이 능력의 획득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계약에 대한 의심, 즉 송출자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심은 결국 송출자인 마스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프레디는 마스터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계약을 파기한다. 프레디의 서사적 행로는 수행의 단계로 이행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서사적 연쇄의 논리상 수행의 실패는 능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능력의 획득을 송출자인 마스터에게 의지했던 만큼 그 획득의 실패 원인도 마스터에게 있는 것이다.

영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프레디라는 결핍의 주체가 겪는 서사 행로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의 상호작용을 검토할 것이다.

2. 서사 도식에 근거한 신뢰의 계약 분석

지금부터는 서사 도식의 조종과 잠재능력 단계에 초점을 맞춰 신뢰의 계약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즉 조종 단계에서 신뢰에 바탕을 두고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 잠재능력 단계에서 주체가 양태적 능력에 의심을 품고 불신에 이르는 과정, 결국 수행에 이르기 전에 계약이 파기되는 양상을 살펴보게 된다.

1) 신뢰 계약의 성립

먼저 프레디가 코즈에 합류하는 단계와 프로세싱을 받아들여 계약이 맺어지는 단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레디가 코즈에 합류한 후 마스터의 설득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종은 설득 행위이자 사역 행위(faire-faire)이다. 먼저 설득 행위의 측면에서 두 인물의 첫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자.

마스터 만취해서 공격적이더군.

프레디 그럴 리가요.

[중략]

마스터 그 상태론 일 못해.

프레디 할 수 있어요.

마스터 길을 잃었군.

프레디 잃긴요.

[중략]

마스터 정도를 벗어나서 헤매고 있지? 그게 자네 문제야.

프레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전 문제없거든요. 일자리 있으면

한 자리 주시죠.

[중략]

프레디 직업이 뭐요?

마스터 난 다양한 일을 한다네. 작가이자 의사이고 핵물리학자이자
이론 철학자라네.
그 이전에 한 인간이네. 대책 없이 궁금한 게 많지 자네처럼.

프레디 일단 사과하죠. 날이 춥고 배가 고파서…….

[중략]

마스터 또 과학자이자 감정가로서 말하네만 이 놀라운 음료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군.

프레디 비밀이요.

마스터 더 만들 수 있나?

프레디 똑같은 무리예요. 대신 더 나은 걸로 준비하죠. 스페셜로 준비하죠. 맛은 어땠어요?

마스터 그럼 밀항자에 대한 처벌은 관두지. 더 만들어주겠다면. 맛만 보려다가 다 마셔버렸다네.

[중략]

마스터 같이 가지. 걱정은 잠시 덮어두게나. 도망 안 갈 테니. 자네 기억은 초대 안 했어.

이 대화에서 우리는 마스터의 설득 행위가 ‘도발(provocation)’과 ‘부추김(séduction)’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스터는 프레디의 역량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도발한다. 특히 ‘그게 자네 문제’라며 프레디를 ‘멸시(défi)’하기도 한다. “멸시는 조종자가 피조종자의 역량을 부정하는 것인데, 피조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긍정적인 역량을 조종자에게 증명하려 하게 된다.”¹⁶⁾ 실제로 우리는 프레디가 자신은 문제가 없으니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6)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228쪽.

송출자의 도발에 자극받은 수령자는 이어서 /지식/의 설득 행위에 직면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직업을 묻는 프레디의 질문에 마스터가 자신을 작가, 의사, 핵물리학자, 이론 철학자로 소개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지식/에 의한 조종행위에서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송출자는 논증이나 예증을 제시하면서 수령자의 이성애 호소해 계약을 맺으려 하는 것이다.¹⁷⁾ 이 지식은 전문가로서의 그의 권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마스터가 제시한 직업들의 주제적 역할은 프레디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의 지식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령자는 ‘초월적이고 역전시킬 수 없는(transcendant et irréversible)’¹⁸⁾ 송출자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스터와의 이러한 대화 이후에 프레디가 그동안 보이던 적의를 누그러뜨리며 사과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도발 행위나 전문적 직업의 남발은 수령자의 이성애 호소하기보다 프레디의 지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과정은 송출자의 진정한 /지식/에 의한 설득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수령자의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한 전략이기 때문에 수령자의 이성적 판단이 작동하면 이 설득 행위는 언제든지 재평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두 사람 간에 공감애 이루어지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공감애 형성은 프레디의 주조 실력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스터는 프레디가 술을 더 만들어준다면 밀항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프레디가 주조한 술의 가치와 밀항자에 대한 처벌의 가치를 등가에 놓고 있다. 이는 배의 소유주로서 밀항자에 대한 처벌권을 가지는 자신의 지위와 밀항자인 프레디의 지위를 동등한 지위로 보장해주는 일이 된

17) A. J. Greimas, *op. cit.*, p.123. 프레디는 마스터의 딸의 결혼식에서 송출자의 믿음직함을 확인하게 된다. 그는 코즈 신도에게 마스터와 얼마나 알고 지냈는지를 물으면서 마스터의 평판을 확인하기도 하고 교주로서 수많은 신도들을 이끄는 마스터의 영향력을 목격하게 된다. 송출자는 자신의 능력을 예증할 수 있는 장소로 수령자를 유인한 셈이다.

18) 박인철, 앞의 책, 249쪽.

다. 교환을 할 때 주고받는 대상은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특히 교환의 대상들 간의 등가 관계는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 토대를 둔 계약(contrat fiduciaire)’에 의존”한다.¹⁹⁾ 이를 고려한다면 두 사람의 이러한 공감대 형성 과정은 설득 행위를 위해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 과정에서 일방적인 위상의 불균형이 아니라 상호적 신뢰가 어느 정도 개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조종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조종자(manipulataire)가 수행해야 할 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 상황과 수행해야 할 과업을 알림으로써 /지식/을 전달하거나, 수령자의 욕망을 유발하는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수령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²⁰⁾ 우리는 다음의 장면에서 송출자가 협조자(adjutant)를 동원해 사역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수령자에게 /지식/이 전달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스터 우리 ‘코즈’ 탄생 이전에 끔찍했습니다. ... 마치 인생처럼 ...
여기 큰 용이 있어요. ... 밧줄을 잡고 그놈 목에 건 다음 몸
싸움을 하죠. 땅을 구르며 실컷 몸싸움을 한 결과 내가 이겨
서 ‘앉아’하면 용은 앉고 ‘기다려’ 하면 기다립니다. ... 가만
있으란 명령을 받은 거죠. 이제 구르고 죽은 척 하는 걸 가르
칩시다.

마스터는 인생을 용과 같은 끔찍한 괴물에 비유하면서 이것을 길들이는 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결혼식 축사라는 것이다. 축사로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이러한 말을 할 때 마스터의 시선과 손동작은 프레디를 향한다. 이 이야기를 듣던 프레디는 그 순간 멈칫하

19) 같은 책, 196~197쪽.

20) 같은 책, 223~224쪽.

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에게 향하는 마스터의 제안을 간파함으로써 수령자로서의 위상이 설정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유혹적 대상물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은 명시적이어야 한다. 마스터의 축사는 은유적이기 때문에 정보적 보완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베르트랑의 주장에서 본 것처럼 송출자의 제안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그 제안의 대상이 얼마나 명확하게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영화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충실하게 수행된다. 프레디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가 가까이 접근하더니 자신이 바로 마스터의 아들임을 밝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생각인지를 묻는다. 망설이는 프레디에게 그는 코즈의 활동을 제안하고 이 일이 마음에 들 것이라고 부추긴다. 이에 대해 프레디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마침내 프레디의 코즈 합류가 결정된다. 결국 프레디가 코즈에 합류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수령자가 신뢰의 계약에 동의하기에 앞서 송출자의 믿음직함을 보장받고 수령자의 지지를 통해 송출자가 신임을 얻는 과정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출자의 믿음직함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에서 가치 대상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과정이 보완된다. 결혼식 다음날 아침 마스터의 아내 폐기는 마스터의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프로세싱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프로세싱은 마스터가 제안하는 대상으로 코즈 세계 안에서는 이것이 병을 치료하는 아주 명백한 방법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는 가치 대상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프레디는 설교를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있다. 설교 테이프는 정보의 담보물로서 가치 대상의 구체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녹음된 내용의 후반부는 다음과 같다.

마스터 당신은 감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저 가능할 뿐 아니라 손쉽게 성취됩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적 충동을 그만두고 타고난 완벽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녹음된 메시지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수령자를 유혹하고 있다. 유혹적 계약(*contrat de séduction*)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가치 대상을 제시하면서 진행된다. 프레디의 관점에서 볼 때 타고난 완벽함으로 돌아감으로써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긍정적 가치이다. 그 내용이 프레디가 원하는 바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 대상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프레디의 관점에서만 가치 있다면 그 가치는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한 채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 즉 수령자가 신뢰의 계약을 맺도록 신임을 작동시키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친 후 마침내 마스터는 프로세싱을 제안한다. 프레디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 행위를 하게 되고 계약이 맺어진다. 마스터의 설득 행위는 결국 인지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게 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프레디의 해석 행위는 마스터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마스터의 설득 행위는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프레디가 자신의 능력을 ‘믿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프레디는 인지적 차원의 해석보다 마스터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계약을 맺는다. 다시 말해 가치 대상에 대한 정보의 주관성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프레디와 마스터 사이에 계약이 맺어질 때의 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스터 새 연구라 하긴 조심스럽지만 일반 프로세싱을 받아보겠나?
프레디 네. 뭘 하면 되죠?

계약에 따라 마스터는 프레디의 병을 고쳐주어야 한다. 반면에 마스터에게 치료를 받기로 하면서 프레디는 신도이자 환자가 된다. 따라서 프레디는 교주이자 의사인 마스터가 부여하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 의무의 준수라는 양태화는 행위소적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피조종자의 역량은 처음에는 /무행위 능력/(하지 않을 수 있다)이라는 양상으로 규정되었다. 즉 그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조종자의 조종을 받고 그는 /무행위 무능력/(하지 않을 수 없다)이라는 양상을 부여받는다. 즉 그는 ‘복종’의 위치에 있게 된다. 피조종자는 경우에 따라 조종자가 그에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때 그의 /무행위 무능력/은 /행위 의지/와 결합된다. 즉 피조종자의 의지는 그에게 부과된 의무와 결합된다.²¹⁾

프레디에게 부여된 /의무/의 양태성은 그를 잠재적 주체(sujet virtualisé)로 성립하게 한다. 계약의 단계에서 프레디에게 /의지/의 양태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해석 행위를 통해 송출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무를 수용하는 과정이 /의지/의 양태성과 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송출자에 대한 뚜렷한 /의지/ 내지 /무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출자에 의해 단계적으로 준비된 신뢰의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설득 행위가 적절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더불어 수령자의 /지식/의 부재와 /믿음/이 동시에 작용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이는 계약이 파기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2) 신뢰에서 의심으로의 이행

송출자는 주체에게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프레디가 부여받게 될 잠재능력은 코즈의 치료 방법에 따라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코즈의 치료는 실행적 차원(dimension pragmatique)과 인

21) 같은 책, 227쪽.

지적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주로 자기통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실험적 차원에서는 감각을 조절하는 행위를 통해 양태적 /능력/을 획득하는 신체적 훈련이 진행된다. 인지적 차원에서는 사회나 가족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결핍을 자극하는 상대방의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을 줄 알아야 한다는 /지식/의 양태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양태화의 과정에서 마스터가 수임하는 송출자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출자가 부여하는 잠재능력을 바탕으로 프레디가 자율적인 삶을 획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주체의 임무 수행 뿐만 아니라 송출자에 대한 /믿음/의 유지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레디는 능력의 획득 과정에서 마스터의 체계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는 ‘변화가 없다’, ‘듣기 싫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만하고 싶다’, ‘하기 싫다’와 같은 말들을 쏟아 낸다. 폐기에게 ‘이것이 도움이 될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프로세싱을 통해 획득한 능력에 대한 의심이 마스터의 위상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으로 인해 송출자의 가치 체계는 흔들리게 된다.

특히 프로세싱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감각을 느끼는 행위,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기, 감각을 조절하는 행위,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기 등으로 구성된다.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세싱이 시도되면서 종류는 늘어나고 복잡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가치 대상의 획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이러한 /지식/과 /능력/의 양태화 과정은 오히려 프레디에게 혼란을 주고 의혹은 점점 불어난다.

프레디는 특히 /지식/의 양태화 과정에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 우리는 앞서 상호 신뢰가 형성된 관계에서만 지식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프레디의 /지식/의 양태화 과정은 결국 마스터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신뢰의 중지는 메타지식을 가능케 하는 인지적 차원의 탐색을 작동시킨다.²²⁾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식/과 /믿음/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과 /능력/의 괴리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²³⁾ 그레마스와 폰타니유 역시 주체가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대상과의 연접(conjonction)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양태성이 주체의 능력을 규정하기 때문이라 주장한다.²⁴⁾

종교적 차원에서는 /믿음/이 /지식/에 우선한다. 마스터가 교주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가 행하는 방식이 /지식/ 보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적 행위보다 종교적 행위라고 규정하면 /믿음/의 양태성이 우선하는 것이다. 결국 주체의 강한 /믿음/은 /지식/의 양태화 과정이 부족하더라도 수행으로의 이행을 허용할 것이다. 하지만 프레디의 경우에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다. 프레디는 /믿음/이라는 양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이는 /능력/의 획득을 방해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송출자와 수령자-주체 사이에서 능력의 획득과 실패에 대한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게 드러난다. 마스터는 실행적 차원의 훈련이 끝났다고 선언한다. 그의 관점에서는 훈련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마스터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프레디는 이를 부정한다. 그는 자신이 획득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믿음/의 부재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실행적 차원에서 /능력/의 획득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앞서 검토한 폰타니유와 질베르베르의 주장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주체는 수행에 실패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양태적 존재에 대한 불신은 /능력/의 획득 과정에 대한 불신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인지적 차원의 훈련

22)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자크 폰타뉴, 앞의 책, 296쪽.

23) 박인철, 「설화 텍스트에서 행동과 정념의 상관관계 - 프랑수와 모리악의 『테레즈 데 스케루』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42, 한국기호학회, 2015, 169쪽.

24) A. J. Greimas & J. Fontanille, *Sémiotique des passions*, Seuil, 1991, pp.69, 141~148.; 박인철, 같은 글, 168~169쪽에서 재인용.

에 대한 성공 여부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두 차원의 양태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체의 행위소적 정체성은 부정적으로 확립되어 가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부정적 양태화의 과정이 결국 계약의 파기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을 분석하기로 한다.

3) 신뢰의 상실과 계약의 파기

마스터는 책을 출간하며 총회를 개최한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새 연구 결과는 기존의 교리를 뒤엎는 내용이다. 즉 교리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또한 마스터는 이론적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화를 참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마스터의 이러한 반응이 그가 신봉자들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들의 부정적 반응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마스터 자신이 충분한 /지식/의 양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스터의 치료 방법은 정교한 /지식/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믿음/에 의지한다. 일관성 없는 /지식/의 주장은 /믿음/의 상실을 가져오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다. 결국 마스터는 프레디가 자율적인 삶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잠재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송출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마스터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프레디는 강연장을 빠져 나온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새로운 모색을 시도한다. 프레디는 마스터의 새 책에 대해 동료와 대화를 나눠 본다. 마스터의 오랜 측근이기도 한 동료의 진술을 통해 마스터의 연구가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는 증언을 듣는다. 프레디는 그동안의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 행위를 하게 된다. 계약 당시에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해석 행위가 새롭게 작동하는 것이다. 마스터 스스로가 교리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그는 마스터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는 마스터에게 복종하고 있었지만 신뢰가 상실되면서 이제는 마스터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한다. 복종에 대한 거부는 결국 계약의 파기로 이어진다. 즉 인지적 주체의 /지식/과 /믿음/의 최초 상태가 반대 상태로 변형을 겪으면서 계약의 파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프레디가 마스터에 대해 갖고 있던 /지식/과 /믿음/이 점차 현재 프레디의 인식상태에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이접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그러한 인식의 부조화가 진행된 것이다.

또 다른 부정적 상황이 연출된다. 송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스터와 관련하여 그의 평판은 수령자인 프레디에게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마스터는 심각한 명예의 손상을 입는다. 더불어 마스터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부정적 평가도 점점 증가한다. 프레디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적 평판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계약 당시에 마스터가 장황하게 늘어놓은 직업들의 평판이 이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스터는 치료의 과정에서 프레디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데 대한 보증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송출자와 수령자 사이에 발생한 정념적 연대감은 끝까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계약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마스터와 프레디는 몰래 밀주를 나눠 마시는 등 상당한 호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마스터의 지식의 양태성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지라도 마스터에 대한 프레디의 정념적 호의는 유지된다. 이는 계약의 파기를 막지는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적 상황이 극화되는 것은 피하게 해준다.

가치 대상의 모호함 역시 계약의 파기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마스터가 제안한 프로세싱은 모호하고 방식도 다양하다. 프레디는 증상의 호전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프로세싱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다. 프로

세상을 통해 획득되는 대상의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싱이 자율적인 삶을 획득하는 기본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보조 프로그램이 능력의 획득과정이라면 이러한 능력은 기본 프로그램의 수행에 종속되어야 한다. 보조 프로그램의 연속적인 실패는 새로운 보조 프로그램을 제시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의 복잡화는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의심을 은폐할 뿐이다.

결국 수령자-주체의 /믿음/은 다양한 측면에서 흔들리기 시작해 부정 되기에 이른다. /믿음/의 부재가 주체의 능력 획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송출자의 양태성에 대한 신뢰마저 파괴된다.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프레디는 수행에 이르기 전에, 마스터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결국 이야기는 실패의 서사로 귀결된다.

IV. 결론

지금까지 영화 <마스터>의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조종 단계에서 계약의 성립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잠재능력 획득 단계에서 주체의 양태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주체가 수행에 이르기 전에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송출자는 우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계약의 주도권을 갖기 마련이다. 따라서 송출자가 주체의 능력이나 수행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면 계약의 파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소통의 상호작용을 기호학적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수령자-주체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약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송출자가 주체를 설득하는 과정이지만 수령자의 반성적 재해석 과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주체가 경험하는 /지식/의 양태화 과정은 /믿음/이라는 메타 양태성과 함께 고려

되어야 했다. 영화에서 /믿음/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체가 송출자에 대해 /믿음/을 확인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믿음/이 부정되는 의심의 단계를 거쳐 /믿음/이 거부되는 행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송출자는 수령자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고 계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서사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신뢰 계약의 체결에서 기저를 이루던 /지식/이 /믿음/이라는 메타 양태성과 함께 인식 상태에 변형을 일으키면서 주체는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믿음/의 양태화 과정에서 발생한 신뢰의 문제가 실행적 차원의 /능력/의 양태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서사적 행로의 단절을 야기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서사 도식을 구성하는 한 단위인 조종의 단계에 내재한 신뢰적 관계가 영화 텍스트 전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계약이라는 인지적 행위에 참여하는 두 행위소 사이에서 /지식/과 /믿음/의 양태화가 둘의 관계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서사적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행과 제재의 단계는 담화화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영화에서 두 인물의 만남과 헤어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영화의 담화화가 서사 도식의 첫 단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서사적 구조와 그것의 담화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의 결과를 적절하게 기술하는 과정이 텍스트의 의미 생성 과정을 규명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그레마스,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 박인철, 「설화 텍스트에서 행동과 정념의 상관관계 - 프랑수와 모리악의 『테레즈 데스케루』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42, 한국기호학회, 2015, 139~180쪽.
- _____, 『파리학과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 · 자크 폰타뉴, 『정념의 기호학』, 유기환 · 최용호 · 신정아 역, 강, 2014.
- D. Bertrand, “Confiance politique et fiducie”, in *Métier de la sémiotique*, edited by J. Fontanille & G. Barrier, PULIM, 1999.
- A. J. Greimas, *Du Sens II*, Seuil, 1983.
- A. J. Greimas & J.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vol. 1, 2nd ed., Hachette, 1993.
- _____.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vol. 2, Hachette, 1986.
- A. J. Greimas & J. Courtés, J. Fontanille, *Sémiotique des passions*, Seuil, 1991.
- J.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PULIM, 1998.
- J. Fontanille & C. Zilberberg, *Tension et signification*, Mardaga, 1998.
- The Master*. VOD. Directed by Paul Thomas Anderson. New York, NY: The Weinstein Company,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Fiduciary Contract on Narrative Transformation:

Focused on the contract and modalization in the film *The Master*

Song, Chi-Man · Jo, Eun-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ssues of the contract generated from communication based on trust. We analyze the narrative of the film *The Master*(2012) in terms of establishment and breaking of contracts based on trust. To do that, this study refers to fiduciary contracts. In the strict hierarchical relationship, the receiver-subject tends to be obedient to the absolute status of the sender. However, this status is overturned in a fiduciary contract. The receiver positively interprets the object of value that is presented in the sender's act of persuasion. In this case, the contract is concluded with trust based on the credibility of sender, the reliability of the object of value, and the adhesion of the receiver. Furthermore, the subject can break the contract if the subject loses trust on the sender. We show that the modalities that intervene in the establishment and breaking of the contract are knowing and believing.

Key Words: the fiduciary contract, narrative transformation, modalization, knowing, believing

투고일 : 2015. 08. 15. / 심사일 : 2015. 08. 30. / 심사완료일 : 2015. 09. 05.